

■ 그림 여행



**나무 네 그루**

(Four Trees c. 1917)

에곤 실레 (Egon Schiele 1890 - 1918)

(캔버스에 유채 110,5 cm x 141 cm  
비엔나 벨베디어)

그림 속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하늘을 석양으로 물들이며 저물어가는 태양이 산너머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려 하고 힘을 잃은 햇빛은 어두워져 가는 마지막 시간을 비추고 있다. 산 아래 부드러운 능선은 다가오는 저녁을 맞으며 조용히 누웠는데 그 위에 붉은 단풍으로 가득한 나무 네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풍부한 색채감과 장식적인 요소와 함께 그려진 이 가을 풍경화는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의 작품이다. 에곤 실레는 초기 도식적이고 극적인 양식의 그림을 그리다가 급진적 표현주의 스타일을 개척하면서 귀스타브 클림트에 이어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화단의 선두주자로 평가되었던 화가이다. 주로 누드 인물화를 그렸고, 인간의 육체를 왜곡되고 뒤틀리게 그림으로써 불안과 위기감에 가득찬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실레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았다. 누드를 그리기 위해 모델을 구하는 과정에서 풍기문란 죄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 생활을 하는 등 그의 품행과 작품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사회의 통념을 깨는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과 경직된 화단 풍토에 도전하는 그의 독창성은 많은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예술가동맹'의 회원이 되어 유럽 주요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평단의 인정을 받았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려 할 때 1918년 유럽을 휩쓸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28세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사망했다.

인물화를 주로 그렸던 실레가 남긴 풍경화는 독특한 감성으로 다가온다. 인간의 본성과 실존에 천착했던 화가의 작품이라 그런지 풍경화마저 인물화처럼 느껴지는데 앞면에 나란히 서서 거의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나무 네 그루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너무나 짧았던 생애 내내 기성 주류 사회에 맞서 싸웠던 예술가였기에 중심을 벗어나 경계선에 서야 인간 본연의 건강한 모습을 지킬 수 있다고 항변 했던 것일까? 양쪽 가장자리에 선 두 그루는 앞이 풍성하고 튼실한 반면 중앙에 선 두 그루는 빈약하거나 가지만 앙상하게 그려져 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상념에 잠기며 그림을 들여다 본다.

《김동백》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퀴,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콜라겐, 블랙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리블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534-4938**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Licensed · Bonded · Insured

**ONE STOP SERVICE**  
HOME REMODELING

**Paint, Kitchen & Bath 리모델링 전문업체**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케비넷  
전기  
플러밍

**714.420.5989 / 714.404.2766**

One Stop Service.brucelee@gmail.com